



농수산물 수출 Zoom In 53호

<p>I 국산 신선농산물, 미국·대만 등 본격 수출개시</p>	
<p>II 포도 재배농가 대상 수출검역요건 교육 실시</p>	
<p>III '농용트랙터 중심 위치 측정방법' 국제표준 채택</p>	
<p>IV 농업 강국 네덜란드와 기술 개발 협력 확대</p>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53호 2018. 8. 17(금)

‘18.7.31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54.4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27.1%	 1.2%	 6.8%
703백만불	3,319백만불	1,420백만불
+ 인삼류, 김치, 파프리카 - 채소종자, 백합, 장미	+ 음료, 라면, 맥주 - 궤련, 커피조제품, 설탕	+ 참치, 김, 굴 - 삼치, 오징어, 바지락

국가별

* 對베트남 쌀 무상원조 실적(1만톤, 16.3백만불)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홍콩 249백만불(14.3%)	▶ 싱가포르 NTUC 연계 쌀 판촉(6.15~계속) ▶ Qoo10 연계 수산물 판촉(7.1~8.31)	인삼류(87%), 맥주(11%) 설탕(△23%), 유지차(△2%)
 ASEAN 1,051백만불(13.2%)	▶ Kofco 연계 한국가공식품 판촉(5.25~계속)	음료(46%), 참치(18%) 궤련(△29%), 커피조제품(△7%)
 중국 822백만불(12.0%)	▶ COSTCO 연계 한국가공식품 판촉(6.10~계속) ▶ Great Wall 등 연계 한국가공식품 판촉(7.14~10.21)	맥주(125%), 인삼류(76%) 김(△16%), 설탕(△15%)
 미국 604백만불(5.1%)		라면(42%), 김(18%) 궤련(△38%), 굴(△10%)
 일본 1,238백만불(3.5%)	▶ 한큐오아시스 연계 한국종합식품 판촉(8.16~9.15)	참치(14%), 파프리카(9%) 제3맥주(△21%), 김(△4%)
라면(32%), 음료(6%) 커피조제품(△53%), 참치(△1%)	▶ 프랑스 로글레어 연계 장류 판촉(6.14~계속)	 EU 360백만불(△2.8%)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18. 1. 1 ~ 7. 31



“ 포도 ”

- ◇ 포도 수출 선도 조직의 동남아 현지 판촉행사 및 현지 수요 증가에 따른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수출 견인
- ◇ 홍콩 수출은 한국산 거봉 수요 증가 및 시장 점유율 확대

2,312천불(129.4%)

- ▶ 주요 수출국 : 베트남(834천불, 231.1% ↑), 싱가포르(780, 204.1), 홍콩(425, 122.5), 말레이시아(145,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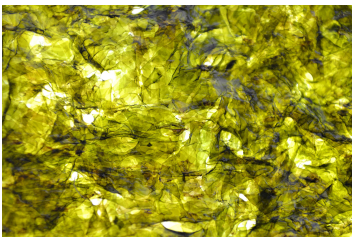
“ 아이스크림 ”

- ◇ 동남아 지역(베트남, 필리핀 등) 수출 증가세 지속 및 국내 빙과류 업체의 러시아 진출에 따른 시장 확대



28,292천불(4.1%)

- ▶ 주요 수출국 : 미국(4,096천불, 5.3% ↑), 베트남(3,397, 25.9), 필리핀(2,857, 28.3), 러시아(219, 71.7)



“ 김 ”

- ◇ 전년대비 김 작황 양호 및 김 시설량 증가 등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수출 호조
- ◇ 태국 및 미국의 조미김 수출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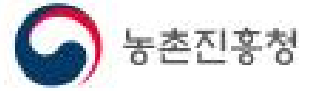
347,611천불(5.4%)

- ▶ 주요 수출국 : 태국(67,524천불, 23.7% ↑), 미국(56,427, 17.6)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농용트랙터 중심 위치 측정방법' 국제표준 채택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ISO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용트랙터 중심 위치 측정방법'이 지난달 25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시험 방법으로 채택됐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 가운데 농업기계 분야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앞서 농진청에서 개발한 '위치 추적 장치(GPS)를 이용한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에 이어 두번째이다.

세계 각 나라에서 기술 규제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리나라에 불리한 국제표준을 개선하고,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기술 선진국의 경우, 자국에 유리한 기술규정이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여 무역기술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표준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주도해왔지만 최근 일본이나 중국 등도 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코드, 아시아-태평양 농업기계 시험평가네트워킹(ANTAM) 등의 농업기계 표준회의에서 자국 시험방법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계 분야에서 2개의 ISO 국제표준 채택으로 우리나라도 농업기계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견줄 수 있게 됐다.

*2015년 ISO 국제표준 채택,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시험 코드 승인

▶국립농업과학원 재해예방공학과 ☎063-238-4153



▲농용트랙터 중심 위치 측정방법
전문과 후륜을 각각 들어 올려 거리와 무게 등을 측정해 자동으로 중심 위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기존 방식보다 쉽고 시간이 덜 걸림

농업 강국 네덜란드와 기술 개발 협력 확대

주요 농업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네덜란드의 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Center, WUR)와 연수프로그램* 참여 협약을 맺었다.

또한 종자생명산업단지와 종자기업 '키진(Keygene)', '엔자 자덴(Enza zaden)'을 찾아 종자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유럽 내 작물 육종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인 '키진'과 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종자생명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네덜란드와 협력 확대는 우리 농업의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 종자생명산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WUR 연수 프로그램 ■ 농업 빅데이터 연구개발 활용, 수출지원, 농식품 안전성 등 분야별로 운영할 계획

▶국제기술협력과 ☎063-238-1118

▶농사로(nongsaro.go.kr) > 영농기술 > 수출농업 > 안전성 정보

자료 안내	우리 수출농업의 미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싱가포르 수출용 (방울, 대과) 토마토 농약안전사용 지침 2018. 7. 	우리 수출농업의 미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본 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 지침 2018. 4. 	우리 수출농업의 미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국 수출용 쌀 농약안전사용 지침 2018. 7. 	우리 수출농업의 미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국 수출용 인삼 농약안전사용 지침 2018. 6.
	각국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은 수시로 신설, 변경, 폐기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웹사이트 방문 등 최신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국산 배 인도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

국산 배를 인도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본부의 8년간의 협상 노력 끝에 인도에서 수입허용 법령을 '18.6월에 제정함에 따라 국산 배 생과실의 인도 수출이 가능해 졌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는 수출 선과장과 저온처리시설을 먼저 승인 받고, 0°C이하의 온도에서 40일 동안 배를 저온처리 한 후 검역본부의 수출 검역만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본부는 선과장 등록 및 저온처리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산 배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을 '18.7.23일자로 제정 고시하였고,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법령정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산 신선농산물, 미국·대만 등 본격 수출개시

검역본부는 8월 5일 조생종 배의 미국·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2019년 6월말 딸기·토마토의 베트남 수출까지, 전국 61개시군 194개 등록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수출 검역계 획량은 총 43,618톤으로 작년 수출량 대비 86% 증가한 물량이다. 최근에는 중남미 신규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 2월에 타결된 아르헨티나 수출용 배는 수출 첫해만 현지검역을 하기로 한 요건에 따라 아르헨티나 식물검역관을 9월에 초청할 계획이다.



포도 재배농가 대상 수출검역요건 교육 실시

검역본부는 '18.7.19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실시한 「수출 포도 규격생산 현장교육」에 참여하는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 소속 포도 재배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단지등록, 재배지검사 등 조건부로 수출되는 국가별 검역요건에 대하여 김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교육은 충남 지역 포도 수출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의 요청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검역본부는 매년 수출 농산물 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검역 요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9,847명을 대상으로 194회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